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 곧바로 만들어 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 탐색을 위한 읽기의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독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읽을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정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독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에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더 필요한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가로 생성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독자는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독자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다.

[A]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은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생성한다. 학습한 정보에 인종, 지역, 성별 등에 대해 편견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보의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발췌하거나 일부 해석을 누락하기도 한다. 또한 원래의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하며, 출처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 ㉠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있는지, 왜곡되게 편집된 정보가 있는지, ㉡ 출처는 명확한지 등을 점검하며 읽어야 한다. 또한 독자는 ㉢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통해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하여 글이나 서적을 통해 내용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1.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지능은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맞추어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 ②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자료의 정보는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 ③ 독자는 자신이 읽고자 하는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 ④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의 검토를 위해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독자가 대상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2.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공지능은 독자의 개인적 선호를 배제하면서 균형 있게 자료를 생성한다.
- ② 독자가 인공지능에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다.
- ③ 인공지능이 정보를 추출 및 조합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있는 정보는 일괄적으로 제거된다.
- ④ 인공지능이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의 변화 가능성은 차단된다.
- ⑤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자료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보기>는 학생의 독서 일지이다. ㉠~㉢와 관련하여 학생의 읽기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체독(體讀)’이라는 독서 방법이 궁금해서 인공지능으로 자료를 생성해서 읽어 보았다. 생성된 자료에 ‘체독은 글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 몸으로 느끼며 읽는 읽기입니다.’라는 설명이 있었다.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라는 말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해서 알아보았다. 생성된 자료에서 ‘동양인의 높은 정신 수준에 적절한 독서 방법’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 체독에 관한 동양의 다양한 사례를 더 생성하여 읽어 보았다. 자료를 읽다 보니 동양의 사례만 찾아 보고 있는 것 같아, 방향을 달리하여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체독 사례를 생성해서 읽어 보았다. 체독에 대해 알게 된 후 인공지능이 제공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주말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서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 보아야겠다.

- 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한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② ‘다양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생성한 것은, ㉠을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③ ‘방향을 달리하여’ 자료를 생성한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④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를 읽은 후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⑤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책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 것은, ㉠을 점검하는 것에 해당하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중 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이다.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협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슨은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슨은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SF(Science Fiction)는 기존의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SF 연구자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을 노뭇이라고 이름 붙였다.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뭇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

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노뭇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빈은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수빈은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센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 ‘낯센’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낯센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A]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말한다. 특히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오늘날 환경 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빈은 주장한다.

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는 특정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 ② (가):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들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고 본다.
- ③ (나): SF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은 SF의 허구적 설정을 통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
- ④ (나): 수빈은 당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은 SF의 소재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 ⑤ (나):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 세계와 닮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

5. ‘프레드릭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F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여 사회의 발전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드러낸다.
- ② SF는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③ SF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미래에 완료되는 내용을 담아 사회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게 한다.
- ④ SF는 미래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보여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 ⑤ SF는 미래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점을 향해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면모에 주목하게 한다.

6.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본연의 것임을 말해 준다. SF 작품들에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으로 묘사된다.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차단됨으로써 SF 속 유토피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 이런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 준다.

- ① 수빈은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SF에서 그리는 이상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말하고 있다.
- ②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 ③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간과한 것이다.
- ④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
- ⑤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7. [노붐], [인지적 낮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붐은 현실 세계와 작품 속 세계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이다.
- ② 노붐은 당대의 지식이나 기술로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상이다.
- ③ 노붐은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 ④ 인지적 낮섬은 친숙함을 주던 일상적인 대상이나 세계에 대해 낮섬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다.
- ⑤ 인지적 낮섬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다.

8. <보기>는 영화 비평이다. (가), (나)를 바탕으로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지난주 개봉한 SF 영화 『○○』 속 미래 세계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우주선 같은 공간이고,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다.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나는 허공의 도시는 가히 압도적이다.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 보이지만, 주요 사건의 인과 관계가 설득력이 있어서 영화의 전개를 따라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 다만, 두 구역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맺는 결말은 요즘 유행하는 SF 영화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 ①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 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에 해당하겠군.
- ② <보기>에서 ‘허공의 도시’와 관련해 언급한 ‘압도적’인 느낌은, (나)에 따르면 SF의 장르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보기>에서 ‘몇몇 장면’의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나)에 따르면 SF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관련 있겠군.
- ④ <보기>에서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분산적이고 파편적인 사회를 종합적으로 통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는, (가)에 따르면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9.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실화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 곁에 있어도 그와 두었던 거리는 멀어지기만 했다.
- ② ㉠: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에게서는 큰 미련을 두지 마라.
㉡: 그는 할 수 없이 산 아래 두었던 본진을 포기했다.
- ③ ㉠: 뜻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길이 펼쳐진다.
㉡: 우리는 올해부터 체력 증진을 목표로 두려고 한다.
- ④ ㉠: 사랑하는 누이를 뒤에 두고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나는 이사를 하면서 큰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 ⑤ ㉠: 우리들은 환경 문제 해결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 그는 결승선을 겨우 6미터 앞에 두고 힘이 빠졌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20세기 중·후반에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 괴리되고, 일회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중은 뉴스를 ㉡ 기피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 저널리즘’이 등장했다.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 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 관념을 ㉢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공공 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 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공공 저널리즘은 언론이 ㉤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해 ㉥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숙고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10.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듀이는 공중을 어떠한 존재로 보았는가?
- ② 공공 저널리즘이 중심 의제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 ③ 공중의 일상과 괴리된 보도가 불러온 결과는 무엇인가?
- ④ 공공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는 무엇인가?
- ⑤ 언론인의 전문화는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11.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중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 ② 공중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했음을 전제로 한다.
- ③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 ④ 공중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하다.
- ⑤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취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녀야 할 요건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례 1] A 지역 ○○ 신문사는 지역민 인터뷰를 통해 그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높은 범죄율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범죄 문제에 관해 자문할 지원자를 모집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역민과 사회 지도자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지역 자문단 회의에서 범죄 퇴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신문사는 그 결과를 취합·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시민 포럼 등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A 지역의 범죄율은 크게 낮아졌다.

[사례 2] B 지역 △△ 신문사는 설문을 통해 지역민의 최근 관심이 지역 경제 위기임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지역민 대상의 집단 인터뷰를 마련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제 행사 유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전문가는 B 지역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행사 유치를 강력히 원하는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된 신문사는 B 지역이 적합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B 지역은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 ① [사례 1]에서 치안상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듀이와 로젠은 모두 공공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중이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겠군.
- ② [사례 1]에서 신문사가 지역민, 사회 지도자, 전문가 등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유도한 것에 대해, 듀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겠군.
- ③ [사례 1]에서 신문사가 공정한 절차로 지역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단 회의의 논의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 마이어는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평가하겠군.
- ④ [사례 2]에서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 로젠과 마이어는 모두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겠군.
- ⑤ [사례 2]에서 신문사가 지역민과 인터뷰하고 수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것에 대해, 리프만은 공중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신문사의 취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겠군.

1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떨어지고
- ② ㉡: 멀리하였다
- ③ ㉢: 깨달을
- ④ ㉣: 알맞은
- ⑤ ㉤: 이루어지는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한다.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굽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에 소리를 들려준다.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다.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였다.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며,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한다.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다.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부호화를 이용한다. 지각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지각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가청강도와 차폐가 있다.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다. 최소가청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최소가청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000 Hz부터 10,000 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 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 한다.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을 차폐 문턱값이라 한다. 지각부호화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

지각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가청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즉 지각부호화는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14.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서 초기 녹음기의, 2문단에서 최근 매체의 음악 저장 방법을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며 읽었다.
- ② 2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의 난점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난점으로 인한 오디오 신호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읽었다.
- ③ 2문단에서 소리 크기를, 3문단에서 청각 특성을 각각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두 변수의 관계를 이해하며 읽었다.
- ④ 3문단에서 최소가청강도에 대해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리의 감지와 주파수의 관련성을 이해하며 읽었다.
- ⑤ 4문단에서 오디오 신호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5문단에서 압축의 과정을 이해하며 읽었다.

1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기 녹음기는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 파일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저장한다.
- ② 축음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와 달리,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 ③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
- ④ 비트를 많이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저장할수록 네트워크 전송에 적합하다.
- ⑤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때, 소리의 품질 저하가 최소가 되도록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한다.

16. **청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소가청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최솟값이다.
- ②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다.
- ③ 저음에서는 최소가청강도가 크므로 임계대역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
- ④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차폐음이라 한다.
- ⑤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두 소리 사이에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소리 A~D의 주파수와 크기, 청각 특성을 제시한 가상의 표이다.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다.

소리	A	B	C	D
주파수(Hz)	150	1,000	1,500	2,000
소리 크기(dB)	30	30	63	55
최소가청강도(dB)	38	8	12	2
차폐 문턱값(dB)	38	20	38	6

- ①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A를 들을 수 있겠군.
- ②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D를 들을 수 없겠군.
- ③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에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겠군.
- ④ A와 C의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군.
- ⑤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궤란(慣亂)함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하사 유예 불평하시더니, 이화란 장사 있어 일찍 무과 급제하여 오래 벼슬을 못하고 분울해하더니, 이 말을 듣고 상소하여 왈,

“신이 이제 급제하여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옵고 성하에 무익하움을 주야에 한이 깊삽더니, 이제 여산의 괴변이 고이 하와 본국이 위태하오니,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하오리다.”

상이 서사를 보시고 대회하사 즉일 ㉠ 여산 부사를 제수하시자, 이화 대회하여 사은하고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대경하고 부모 왈,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 네 구태여 자원하여 죽으려 함은 어쩍이뇨. 달리 말고 가지 말라.”

생이 대 왈,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

인하여 즉시 하직코 발행 나흘에 여산에 이르러 도임하니라.

[중략 부분 줄거리] 이화는 아전 집의 자물쇠에 갇든 혼령인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물으나,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화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이 애걸하여 왈,

“네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는 일이 없으나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내 말하나 네가 처치를 잘 못하면 나는 에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이화 은근히 문 왈,

“좋은 피를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오.”

여백 왈,

“저 은행나무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 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그 피 빨아 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잡기를 착실히 할지니, 이 고을 백성에게 명하여 만군으로 겹겹이 진 쳐 사람마다 다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라 하고, 대톱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니,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 백발 노옹과 노파 나올 것이니 억만 병으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이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왈,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말라.”

하고 ㉡ 각 면에 하령하니, 그물을 뗏어 둘러치고 억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어라 하니,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려 왈,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 온가 하나이다.”

원이 대소 왈,

“너희 무삼 지각이 있노라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 개의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 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하고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 과연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벌여 왈,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

원이 문득 고성으로 크게 꾸짖어 왈,

“너희 관원의 지휘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려든, 나무 재변이 이와 같으매 베는 바라. 너희 방자히 굴어 대사를 이렇듯이 그릇되게 하니 반드시 살리지 못하리라.”

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베니라.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벽력 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일광이 어둡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 겨우 정신을 차려 고성 왈,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함하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매 길이 한 발이 되고 금빛 같은 여우라. 화살과 창검으로 ㉢ 그 짐승을 죽임에 이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 왈,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더니, 문득 보고하여 왈,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

이화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더라.

- 작자 미상, 『이화전』 -

18.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화는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해칠 수 없다고 여기고 여산에 부임했다.
- ② 이화는 모든 관리와 백성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자신의 뜻을 고수했다.
- ③ 모든 군사는 이화의 호령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화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다.
- ④ 모든 군사는 은행나무 속의 유혈을 보고 당황하여 이화에게 명령을 거둘 것을 요청했다.
- ⑤ 이화는 백발 노옹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며 나무를 베었다.

19.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화는 벼슬을 못 했던 울분을 ㉠을 통해 해소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을 통해 시도한다.
- ② 상은 황폐한 인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을 행하고, 이화는 자신에 대한 백성의 신임을 되찾고자 ㉡을 행한다.
- ③ 이화의 부모에게 ㉠은 이화의 안위를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이화에게 ㉡은 상의 권위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④ 군사들은 ㉡을 계기로 이화를 외면하게 되고, 백성은 ㉡을 근거로 하여 이화를 신뢰하게 된다.
- ⑤ 이화는 백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을 행하고, ㉢을 통해 관리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다.

2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과 일치함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로 증명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A]에서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상이 자신들과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B]에서는 상대방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B]에서는 자신들과 상대방이 공유한 경험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상황을 가져온 상대방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방의 지위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스스로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화전」은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 준다.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은 전기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며,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서사는 여타의 영웅 소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혼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해 준다는 점, 주인공이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전수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조력자나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여 준다.

- ① ‘본국’의 ‘사변을 제어하’겠다고 말하며 국가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자신을 ‘베고자 하’는 이화에게 ‘좋은 피’를 알려 주는 여백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는 달리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잡귀’를 잡는 것에 관해 이화가 여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현실 세계에 속한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전기 소설로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여백에게 ‘여우를 잡’는 방법은 듣게 되나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수받지 못한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주인공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여백의 조언을 따른 결과 ‘수여우’가 죽은 것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 달리 조력자가 혼령임에도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자늪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진조한 가을길에 가쁜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늪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나)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일생이 달의 자장(磁場) 속에
간헐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웬지 가슴이 멎혀져서
끝없이 야행(夜行)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引力)이 바닷물을 끌듯이.

- 이수익, 「달빛 체질」 -

(다)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聖人)은 ㉡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우 상사 사양(禹上舍士仰)은 약봉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산다.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띠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래도 사양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容燕舍)’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 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사양이 언젠가 ㉢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해 주었다.

“군(君)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을 뿐일세.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아침저녁으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이 아니라네. ㉣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 군에게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 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하게 된다네. 그래서 소자(邵子)는 ‘배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 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홍중의 기를 토해 내니 우주에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지.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의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네.”

- 채제공, 「용연사기」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② 4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일생’ 동안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6연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모체의 태반’을 떠올리는 행위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2연과 3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6연에서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6연의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통해, 4연의 ‘달의 자장’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군.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보조 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시에서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① (가)에서는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를,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과거를 힘들었다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는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화자의 평온한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에서 ‘태양 체질’을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을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것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가)에서 ‘해가 저물’ 때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나)에서 밤에 느끼는 심리를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상황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모두 화자의 개성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겠군.

2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외적 형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② ㉡: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 ③ ㉢: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자기 집의 크기에 대한 ‘사양’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다.
- ④ ㉣: 명령하는 표현을 통해, ‘나’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사양’에게 권유하는 진술이다.
- ⑤ ㉤: 연쇄적 표현을 바탕으로, ‘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사양’에게 적용하여 설명하는 진술이다.

26. 다음에 따라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이, (다)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

- ① (가)에서 화자는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 들이 당연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전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다)에서 글쓴이는 ‘향기와 빗갈이 서로 한데 모이’는 ‘뜰’에 주목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에서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다)에서 글쓴이는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에서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다)에서 글쓴이는 ‘큼과 작음’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에서 화자는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 황혼기의 불완전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에 주목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 삼춘이라
버드나무 드린 곳에 피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푼 곳에 벌 나비 분분하다
우리 피꼬리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이십오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 덧에 다닫고야
아이 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먼 산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구름 같은 귀밑일랑 고운 머리로 꾸미도다
동해의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가을벌에 바랜 베를 연반 물 들여 입고
선명하게 나와 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 찾았으되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학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이 높은 고개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에 다닫거다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층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련가
 어찌 저리 맑아 있노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와서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 놓고
 청유라 백분이라 화전을 지저 놓고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되
 어서 오고 어서 오소
 집에 앉아 수록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부녀자들 함께 **즐김** **이에서** 더할소냐

(중략)

청계변에 복성 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 없이 다 즐기니
 ㉠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이백(李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을손가
 꽃 사이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소냐
 규중에 **씩힌 간장** **오늘**이야 꽤한지고
 가슴이 상쾌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흥대로 놀려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흘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 작자 미상, 「화전가」 -

* 정관: 술.

(나)

㉢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동문에 **괘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피**에 얹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괴
 좋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 동문에 괘관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며 살다가 자연에 귀의하는 것.

(다)

㉣ **청산이 둘러 있고 벽수도 흘러간다****풍월**이 **벗이** 되어 ㉤ **백운(白雲)**에 누웠으니**백구(白鷗)**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

<제2수>

- 채헌, 「석문가」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념적 사유를 통해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②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 ③ 구체적 행위를 통해 대상의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④ 대상의 이면적 가치에 주목하여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 수려한 경관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과 관련지어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
- ③ ㉢: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는 배경이 드러난다.
- ④ ㉣: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속적 성취의 추구가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⑤ ㉤: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난 공간에 있음이 드러난다.

29.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원인이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는 화자가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지이고, ㉤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다.
- ③ ㉢는 화자가 계절이 변화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고, ㉤는 화자에게 특정한 계절을 연상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④ ㉢는 화자가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⑤ ㉢는 화자가 시대를 태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이고, ㉤는 화자가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대상이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을, (나)와 (다)는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호에서 지내는 상황을 보여 준다. 세 작품에는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로서의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정서,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의 ‘고기’를 낚고 ‘뒷뎡’의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금오산’의 푸름을 보며 ‘충신’을 연상하고, (나)에서 ‘전려’에 돌아와서도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는 것에서,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에서 ‘청계변’의 광경을 ‘무릉원’으로, (나)에서 ‘청풍’과 ‘명월’을 다룬 것이 ‘대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에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기’이 ‘이에서 더’하겠냐고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공동체적 흥취를, (다)에서 ‘풍월’을 ‘벗’으로 삼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자족적 흥취를 엿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한시적 만족감을, (다)에서 ‘백구’와 ‘백년’을 놓고자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지속적 만족감 추구를 엿볼 수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김원석이 양덕영감의 집에서 명절 떡을 훔쳐 온다. 이 떡으로 또쇠 아버지와 치전(길성 아버지)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치전이 급체로 죽는다. 이 일로 인해 순사가 양덕영감을 찾아온다.

“이리 오너라.” 하며 순사는 죄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이의 소매 자락을 잡아 채친다. 가슴이 떨리나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고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 사랑 마당에 들어서서도 원석이의 소매를 놓지 않고 큰방에다가 대고 주인을 부른다.

노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 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약(藥) 맡아보는 ㉡ 선달이 나왔다.

“당신이 주인이요?”

“아네요…….” 하고 이 늙은이는 벌벌 떨면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양덕영감이 나왔다.

“왜 그러우?”

양덕영감은 망건을 도드라지게 쓴 위에 곱다란 인모탕건을 엮어 놓았다. 탐스런 대모퉁잠이 은은히 비추인다.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 데에 불끈한 순사는,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하고 연거푸 물었다. ㉢ 양덕영감은 왜 그러는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네.” 하고 겨우, 그러나 아까보다는 좀 수그러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주재소로 좀 갑시다. 어서 옷 입으우.”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모르우. 어서 옷 갖다가 입우.”

이러는 동안에 노영감은 마루로 나서고 ㉣ 꼬깔 참봉은 누가 기별했는지 안에서 눈이 뚱그라서 고깔을 휘젓고 튀어나오고 아들 손자 하인 할 것 없이 삼시간에 마당이 뻘뻘하게 모여 들었다. 원석이 처는 코끝이 빨개서 뛰어나와서 뚱그란 두 눈을 해해 내젓다가 남편이 순사에게 붙들려 섰는 것을 보고 틈을 비비고 나서다가 꼬깔 참봉께 호령만 당하고 사람의 틈으로 물러섰다.

“왜 그러슈? 치전이 죽은 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

꼬깔 참봉이 나서며 이렇게 물었다. ㉤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였다.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중에서는 들렸다.

“그럼 갈 테건 당신도 갑시다.” 하며 ㉥ 순사는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꼬깔 참봉이 나중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원네를 개울러 가며 애원을 해 보았으나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어디로 도망이나 할 염려가 있는 듯이 부자의 옷을 내어다가 입혀서 앞장세우고 주재소로 갔다. 경관의 앞에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 ㉦ 이런 일은 이곳에 주재소가 나와 선 지 수십 년 내에, 아니 이 집의 가문에 없던 일이었다.

(중략)

치전이의 장사는 하여간 이와 같이 하여 그날 저녁때에 눈발이 날리고 쓸쓸한 가운데 – 그러나 읍내의 청년 단체의 대표자의 호상까지 받고서 무사히 지냈다. 송장을 파묻고 내려올 제 그 청년들은 원석을 붙들고,

“기위 양덕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니 나을 바에야 오늘로라도 나오슈. 우리도 이리 올 때에는 그 집에 가서 장비라도 부조를 하라고 권고를 할 작정이었으나 그까짓 놈이 내놓으면 얼마나 내놓겠소. 그래서 그만두었지만 저희도 좀 정신 차릴 날이 있으리다.” 하며 남의 일이건만 왜 그러는지 성벽을 내어서 여러 사람을 충동이는 것 같았다.

㉧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좀 양덕 댁에 말해 볼까 하다가 핀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두었습죠.”

원석이도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마다요. ㉨ 우리 지부에서도 창립할 때 원조를 청했더니 단돈 일 원 한 장도 안 내고 그런 건 우리는 모릅니다고 뻔뻔 하기가 바지랑대*던데…….”

이것은 또 다른 청년의 말이다.

“그는 하여간에 김원석 씨는 그 집에서 나오면 당장 어테를 가시려우?”

거의 길성이 집 근처까지 와서 한 청년은 원석을 쳐다보며 말을 멈춘다. 길성 어머니는 어찌나 추운지 이제는 울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달음질을 해 간다.

“왜 그러시죠? …… 저두 이번 일에 무식한 생각이거나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단정코 서울로 올라가렵니다.” 하고 원석이도 발을 멈추며 섰다.

“서울루? 서울루 가서 뭘 하려우?”

“무얼 하자는 게 아니오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땅뽕기라도 부쳐서 먹고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겠지마는요…….” 하며 원석이는 추운지 어깨를 으쓱하며 두루마기 소매로 코를 쓱 씻는다.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 말을 들으려는 듯이 잠자코 쳐다본다.

[A]

“글쎄 말요.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어렵어롭하다가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청년은 이런 소리를 한다.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아직 나이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이에 네 식구를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보여주어야겠다는 말, 또 이곳에 떨어져 있으려면 친구들에게 낯이 없어서 괴롭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하였다.

- 염상섭, 「두 출발」 -

*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31. [A]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전모를 제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③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혼용하여 특정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관찰자의 시선으로 특정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32. ㉠~㉤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를 대신하여 마당으로 나온다.
- ② ㉢는 불안한 상황에 처한 ㉠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 ③ ㉢는 ㉤가 ㉢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하는 것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한다.
- ④ ㉢는 ㉢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 ⑤ ㉤는 ㉢가 제안한 바를 수용하여 ㉢를 주재소로 데리고 간다.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심리적인 압박 상태를 해소하고자 애쓰고 있음이 나타난다.
- ② ㉢: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데에 따른 반응을 나타낸다.
- ③ ㉤: 시간적인 내력을 따져 보며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보여 준다.
- ④ ㉢: 대화에서 언급된 대상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한 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 ⑤ ㉤: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특정 사물의 속성에 빗대어 드러낸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된 시기에, 엄격한 상하 관계에 기반한 신분 제도가 혼란해지는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모습이나,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면모를 보인다. 또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 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은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이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재현하며,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똥그란 두 눈을 뽕뽕 내젓’는 원석의 처에게 ‘호령’하는 꼬깔 참봉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며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그까짓 놈’의 행태를 지적하고 그들도 ‘정신 차릴 날’이 올 거라는 청년의 말에서,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던 시기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에서,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 관계가 역전된 사회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쫓겨나게’ 된 원석이 ‘깨달은 것이 있’다며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인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만으로 순사를 대하는 양덕영감과 달리, ‘굽실’대며 ‘원네’라고까지 하는 꼬깔 참봉의 모습에서, 위 세대보다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을 이루는 단위에는 단어, 구, 절 등이 있다. 이들은 같은 단위끼리 대등하게 연결되어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 단, 명사와 명사구는 같은 단위가 아니지만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 국어에서는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병렬 구성을 만든다. 예컨대, ‘물과 불’에서는 ‘물’과 ‘불’이 접속 조사 ‘과’로, ‘밖은 춥고 안은 덥다.’에서는 ‘밖은 춥-’과 ‘안은 덥-’이 연결 어미 ‘-고’로 대등하게 연결되었다. 물론 동일한 단위가 조사나 어미 없이 나열되는 것으로도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

병렬 구성에서는 둘 이상의 요소가 대등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는 유지된다. 예컨대, ‘밖은 춥고 안은 덥다.’나 ‘안은 덥고 밖은 춥다.’는 둘 다 같은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절이 병렬 구성을 이룰 때,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똑같은 말이 동일한 문장 성분이면 후행절의 해당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형은 지금 네 살이고 동생은 지금 세 살이다.’에서 후행절의 ‘지금’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렬 구성의 특성을 이해하면 문장의 문법적 적절성을 따질 때 유용하다. 예컨대, ‘어떤 법으로써 평화 수호와 인권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쓴 ‘이 법으로 평화 수호와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를 상정해 보자. 이때 조사 ‘와’로 연결된 두 요소는 ‘평화 수호’와 ‘인권을 보장하기’인데, 전자는 구이고 후자는 절이다. 즉 ㉠ 병렬 구성을 이루려면 그 요소들의 단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그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에서 후행절에 나타나지 않은 부사어 ‘남에게’는 선행절의 목적어 ‘남을’과는 다른 문장 성분이다. 즉 ㉡ 동일한 문장 성분이 아닌데 생략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끝으로 ‘빵과 물을 마셨다.’에서, ‘빵과 물’은 병렬 구성이지만 ‘빵’은 서술어 ‘마시다’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 즉 ㉢ 대등하게 연결된 모든 요소가 동일한 성분에 호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서관이 우리 집과 참 가깝다.’를 ‘우리 집이 도서관과 참 가깝다.’로 바꾸어도 의미가 유지되므로 두 문장에는 모두 병렬 구성이 있다.
- ② ‘나는 빵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에는 연결 어미가 쓰였으나 두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 문장에는 병렬 구성이 없다.
- ③ ‘팥, 콩, 쌀이 많다.’에는 접속 조사가 없지만 명사가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으므로 이 문장에는 병렬 구성이 있다.
- ④ ‘오래 건기랑 빨리 건기 중에 뭘 할까?’에는 병렬 구성이 있지만, 이는 어미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 ⑤ ‘동생은 중학생이었으나 형은 대학생이었다.’에는 병렬 구성이 있고, 이는 어미로써 이루어졌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에는 ㉠~㉣의 문제가 하나 이상씩 있다. [보기 문장]에는 이런 문제 없이, ㉠~㉣가 나타내려던 바가 표현되어 있다. 이제 ㉠~㉣에서 ㉠~㉣의 문제를 있는 대로 찾아보자.

- ㉠ 나는 매주 체력을 단련하거나 방 청소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을 끓이거나 빵을 굽느라고 집에 머문다.
- ㉡ 나는 매주 체력을 단련하거나 방을 청소한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이나 빵을 굽느라고 머문다.
- ㉢ 나는 매주 체력 단련이나 방을 청소한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을 끓이거나 빵을 굽느라고 머문다.
- ㉣ 나는 매주 체력 단련이나 방 청소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이나 빵을 굽느라고 집에 머문다.
- ㉤ 나는 매주 체력을 단련하거나 방을 청소한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을 끓이거나 빵을 굽느라고 머문다.

[보기 문장] 나는 매주 체력 단련이나 방 청소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을 끓이거나 빵을 굽느라고 집에 머문다.

- ① ㉠: ㉠ ② ㉡: ㉢ ③ ㉢: ㉠, ㉠
- ④ ㉣: ㉠, ㉢ ⑤ ㉤: ㉠, ㉠, ㉢

37.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현기의 부모가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려는 상황]

엄마: 아들, 여행사 안내문 좀 가져다줄래? 엄마가, 우리 언제 나가야 하나 좀 ㉠ 보자.

아빠: (방에 들어오며) ㉡ 당신 뭐해요?

엄마: 요 ㉢ 앞 여행 때 늦었던 게 생각나 시간 좀 보려고요.

아들: (엄마에게 전해 준 안내문을 함께 보며) 여기 말고, ㉣ 다음 장. 네, 거기, 집합 장소에서 11시에 모여야 한대요.

아빠: 그럼, 집 ㉤ 앞에서 9시 버스 타면 되겠네요. 아, 어머니 전화 왔었어요. ㉥ 당신께서 오후에 현기 보러 오신대요. 현기야, 우리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아들: 네, 잘 다녀오세요. ㉦ 다음에는 저도 같이 갈게요.

엄마: 그래, ㉧ 우리 갔다 올게. 할머니랑 둘이 있는 동안에도, 우리, 화초에 물 매일 꼭 ㉨ 주자.

- ① ㉠의 주체는 ㉤이 가리키는 대상과 같다.
- ② ㉡과 ㉥은 모두 청자를 가리킨다.
- ③ ㉣은 ㉤과 달리 시간을 가리킨다.
- ④ ㉦이 가리키는 시간은 ㉢보다 먼저이다.
- ⑤ ㉨의 주체에는 ㉠이 가리키는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학습 활동>—

격 조사나 보조사는 앞말에 둘 이상 결합할 수 있다. 이때 이들의 결합 유형에는 ‘격 조사-격 조사’, ‘격 조사-보조사’, ‘보조사-격 조사’, ‘보조사-보조사’가 있다. 예컨대 ‘형에게 조차도’의 ‘에게조차’는 두 번째 유형에, ‘조차도’는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격 조사와 달리, 보조사는 어미나 부사 바로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 문장에서 확인되는, 격 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모두 나타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 애는 늦게나마 나만을 위해 자기한테만 있는 책을 빌려줬다.

- ① 작은 집이나마 필요한 동물은 고양이만이 아니겠다.
- ② 뜻밖에 그 좋은 소식이 큰누나에게까지는 전해졌다.
- ③ 규정만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길이 이밖에는 없었다.
- ④ 논리가 이것뿐이라면 말로써는 이길 도리가 없겠다.
- ⑤ 우리만의 장점을 그에게 조금이라도 설명해야 했다.

39.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단어의 의미 변화에는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는 확대, 원래의 의미 중 일부가 사라지는 축소,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이동 등이 있어요. ‘스시(사이)’는 확대를, ‘놀다(놀다)’는 축소를, ‘즈음하다(즈음하다)’는 이동을 겪었어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자료를 아래에 제시했어요. 이들 단어의 의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도즈기 ㉠ 스실(스시+ㄷ) 디나샤 [도적의 사이를 지나서]
- 七寶琴(칠보금) ㉡ 놀오(놀+--고) [칠보금을 연주하고]
- 푸른 門(문)이 ㉢ 즘슴흐고(즈슴흐+--고) [푸른 문이 사이에 있고]

- ㉣ 사이 좋은 가족
- 물고기가 한가로이 ㉤ 놀고
- 현충일에 ㉥ 즘슴하여

학 생: 현대 국어 단어 [A] 을 확인해야 해요.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사이’에 ㉠에서의 뜻이 없고 중세 국어 ‘스시’에 ㉣에서의 뜻이 없음
- ② ‘놀다’에 ㉡에서의 뜻이 있고 중세 국어 ‘놀다’에 ㉤에서의 뜻이 없음
- ③ ‘놀다’에 ㉡에서의 뜻이 없고 중세 국어 ‘놀다’에 ㉤에서의 뜻이 없음
- ④ ‘즈음하다’에 ㉢에서의 뜻이 없고 중세 국어 ‘즈슴흐다’에 ㉥에서의 뜻이 있음
- ⑤ ‘즈음하다’에 ㉢에서의 뜻이 없고 중세 국어 ‘즈슴흐다’에 ㉥에서의 뜻이 없음

[40~43] (가)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해 만든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리포터: ‘오! 이런 정보’ 시작합니다. 가을의 초입이라서 그런지 단풍 구경을 언제 가는 게 좋을지 알려 달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어요. ㉠ 그래서 오늘은 단풍 시작과 절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단풍 시작과 절정을 알리는 특별한 나무가 □□ 지방 기상청에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 왔습니다. 기상 관측 담당자를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측 담당자: 안녕하세요. □□ 지방 기상청 관측과 과장 김○○입니다.

리포터: ㉡ 이곳에 특별한 나무가 있다던데, 어디 있나요?

관측 담당자: 뒤를 보시죠. 바로 이 단풍나무입니다.

리포터: 여느 단풍나무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여러분,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팻말에 ‘식물 계절 관측 표준목’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관측 담당자: 맞습니다. 지금은 9월 초라 단풍이 들기 전인데요, 이 단풍나무는 □□시의 공식적인 단풍 시작과 절정의 기준이 되는 ‘식물 계절 관측 표준목’ 중 하나입니다. 기상청은 계절의 지역 차이와 기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식물 계절 관측을 합니다. 기상청 산하 23개 기관이 전국의 유명한 산과 10종의 표준목을 관측하고 있는데, 이들 표준목 중 단풍나무의 경우 단풍 시작과 절정을 관측하여 기록합니다.

리포터: 이 나무가 □□시의 단풍 시작과 절정을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니 달리 보이네요. 그럼 단풍나무 표준목에서 단풍 시작과 절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관측 담당자: 단풍나무 표준목이 20% 정도 물든 때를 해당 지역의 단풍 시작, 80% 정도 물든 때를 단풍 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관측자가 물든 정도를 눈으로 직접 관측하여 판단합니다.

리포터: ㉢ 그렇다면 단풍 시작에서 절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관측 담당자: 지역마다,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픽으로 나가는 □□시의 최근 3년 자료를 보시면 단풍 시작에서 절정까지 10일 내외가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	시작	절정	소요
2024년	10/25	11/3	9일
2023년	10/18	10/29	11일
2022년	10/24	11/3	10일

□□시 최근 3년 단풍 관측 정보

리포터: 오늘 △△고 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왔다고 해서 만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표준목을 본 소감이 어때요?

학 생: 이 나무가 우리 □□시 단풍 시작과 절정의 기준이 된다니 신기해요. 단풍이 들면 다시 와서 사진 찍고 싶어요.

리포터: 정말 멋진 사진이 될 것 같네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앞서 ㉠ 기상청에서는 표준목 외에 유명한 산도 관측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단풍 시작과 절정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측 담당자: 표준목을 관측할 때와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나무를 하나하나 보기보다 산 전체를 조망하여 판단합니다.

리포터: 끝으로 시청자분들이 산행을 계획하실 때 단풍 시작과 절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관측 담당자: 네. 기상청에서는 유명한 산 관측 정보를 기상청 누리집의 ‘유명 산 단풍 현황’ 웹 페이지에 ㉡ 9월부터 공개하여 11월까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웹 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모두 ‘단풍 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리포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나)

식물 계절 관측 과정 한눈에 보기 - 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유명 산 단풍 현황 정보 활용하기

지금은 9월 초라 ‘단풍 전’이에요. 기상청 누리집을 수시로 확인하여 ‘단풍 시작’과 ‘단풍 절정’을 놓치지 마세요!

기상청 누리집 바로 가기 (QR 코드)

40. (가)를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 중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리포터가 팻말을 손짓으로 가리키며 팻말에 안내된 나무가 특별함을 언급한다.
- 화면의 왼쪽 상단에, 프로그램의 제목과 이번 방송의 소재가 무엇인지 나타낸다.
- 촬영된 화면에 그래픽을 삽입하여, 관측 담당자가 말한 자료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 리포터가 방문객을 인터뷰하여 표준목에 대해 방문객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다.
- 단풍 구경을 언제 가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 달라는 시청자의 요청이 많았음을 리포터가 밝힌다.

41. 다음은 (가)의 시청자 게시판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청자 게시판

댓글

들꽃씨앗: 과학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사람이 눈으로 직접 판단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식물 계절 관측은 낭만적이네요.

아기햇살: 우리 지역에 단풍이 시작됐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집 앞의 단풍나무는 물들어 있지 않아서 의아했던 적이 있어요. 표준목이 공식 기준이어서 그랬던 거군요.

밝은누리: 방송을 보고 10종의 표준목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은행나무, 배나무, 뽕나무 등도 있었어요. 10종의 표준목을 모두 소개해 줬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 ‘들꽃씨앗’은 방송에서 소개된 분야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언급하고 있다.
- ‘아기햇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밝은누리’는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정보가 있는 점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 ‘들꽃씨앗’과 ‘밝은누리’는 모두, 방송 후 추가로 수행한 정보 탐색 활동을 바탕으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추천하고 있다.
- ‘아기햇살’과 ‘밝은누리’는 모두, 방송에서 확인한 정보를 다른 매체에서 들은 정보와 비교하고 있다.

42. 학생이 (가)에서 확인한 정보를 (나)에 제시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단풍 시작과 절정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도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 식물 계절 관측과 관련하여 기상청이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점선으로 분할하여 제시하고 있다.
- 웹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고 한 단풍 현황 정보를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지도로 보여 주고 있다.
- 9월 초라 단풍이 들기 전이라는 정보를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문구와 그림을 함께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 단풍나무 표준목이 있는 유명한 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QR 코드를 사용하여 안내하고 있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려고 하다’를 사용하여, ‘단풍 시작과 절정’을 방송에서 다루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
- ㉡: ‘-던데’를 사용하여, ‘특별한 나무’에 대한 정보의 일부를 리포터가 이미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얼마나’를 사용하여, ‘단풍’이 절정이 되는 일자에 대한 정보를 관측 담당자에게 요구함을 드러내고 있다.
- ㉣: ‘에서’를 사용하여, 기상청이 ‘유명한 산’ 관측의 주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 ㉤: ‘-여’를 사용하여, ‘공개’가 ‘수시로’ 하는 ‘업데이트’보다 먼저 이루어짐을 드러내고 있다.

[44~45] (가)는 학교 행사에서 사용할 온라인 가상 게시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행사 직전 확인한 온라인 가상 게시판의 모습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가와 대화' 온라인 가상 게시판 준비 대화방

[공지] '작가와 대화' 온라인 가상 게시판 링크: wo□□tjd.com/△△1
wo□□tjd.com/△△2

다시 열지 않음 접어 두기

2025년 8월 18일

연주: 애들아, '작가와 대화'에서 사용할 온라인 가상 게시판 두 개를 내가 만들어서 그 링크를 공지로 설정했어. 이 가상 게시판은 협동 작업이 가능하니 우리가 사전 작업을 하고 전교생이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자.

승규: 알겠어. 연주야, 그럼 행사 일정 좀 다시 올려 줘.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연주: 미안, 잘못 썼어. 잠시만.

행사 일시 및 대상: 2025. 9. 1.(월) 7교시/전교생
장소: 교내 시청각실(교실로 실시간 방송 송출)

승규: 행사 때, 우리가 만든 온라인 가상 게시판을 전교생이 교실에서 방송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겠네.

행사 일정 확인했으면 이 메시지에 체크 표시해 줘. 너희 세 명 다 확인하면 회의 시작할게.

윤아: 잠깐만. 지우가 어제 실수로 나가 버려서 다시 초대해 달라.

윤아님이 지우님을 초대했습니다.

윤아: 지우야, 초대했어.

지우: 미안. 이전 메시지들이 안 보여. 어디까지 얘기했어?

승규: [답장]
행사 일시 및 대상: 2025. 9. 1.(월) 7교시/전교생
장소: 교내 시청각실(교실로 실시간 방송 송출)
↳ 지우야, 행사 일정 확인하고 있었어.

그럼, 온라인 가상 게시판 구성에 대해 의견 나눌게.

승규: 가상 게시판에 들어갈 항목은 소개 영상 두 개, 책에 대한 짧은 소감, 작가님께 드릴 질문이야.

지우: 그럼, 행사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 둘 소개 영상이란 학생들이 올려 둘 짧은 소감은 가상 게시판 1에, 행사 중에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올릴 질문은 가상 게시판 2에 넣으면 되겠네.

윤아: 좋아. 그런데 가상 게시판 1에 들어갈 소개 영상과 짧은 소감이 각각 영상과 글이라서 서로 양식이 달라.

승규: 그렇네. 두 개를 다른 구역으로 나눠서 정리하자.

윤아: 소개 영상 구역에는 책 소개와 작가 소개가 올라가는 거지?

응. 그런데 영상들만 올리면 나중에 무슨 내용의 영상인지 구별하기 힘들 것 같아.

지우: 재생해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겠네. 그러면 게시물에 무슨 영상인지 써 두자.

윤아: 짧은 소감 말인데, 행사 때 작가님과 주제별로 대화하며 살펴보기로 했으니 미리 분류하자.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분류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우: 짧은 소감 구역에 대화 주제어를 적은 게시물들을 올려 두고 학생들이 그 게시물에 댓글로 소감을 적게 하자. 그러면 짧은 소감들을 손쉽게 분류할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리고 가상 게시판 2 말인데,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써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아.

윤아: 그건 내가 예를 몇 개 써서 올려 놓을게.

승규: 가상 게시판 2가 행사 시작 전에는 비어 있어서 밋밋해 보이니, 행사와 관련된 이미지를 배경에 넣자.

작가님의 책 '우리의 초록'의 이미지를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반영해서 만들어 보자!

(나)

가상 게시판 1

소개 영상 짧은 소감

연주 지우

책 소개 영상 작가 소개 영상

인물 결말

↳ 댓글: 김우리를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 댓글: 행복한 결말이라 좋았어요.

↳ 댓글: 주인공처럼 저도 꿈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 댓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완벽한 결말이었어요.

가상 게시판 2

작가님께 드릴 질문

예)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 주인공의 선택은 어떤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44. (가)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주가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잘못' 쓴 메시지를 제거하였다.
- ② 승규와 윤아가 '체크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연주의 요청을 이행하였다.
- ③ 윤아가 '초대'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방에 없던 지우를 다시 들어오게 하였다.
- ④ 승규가 '답장' 기능을 이용하여, 지우의 이전 메시지를 다시 노출하며 질문에 답하였다.
- ⑤ 연주가 '공지'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가상 게시판 링크' 정보를 화면 상단에 제시하였다.

45. (가)의 내용을 반영하여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상 게시판 1에서는 자료 양식의 차이에 대한 윤아와 승규의 대화를 반영하여, 구역을 나누었다.
- ② 가상 게시판 1에서는 영상 구별의 어려움에 대한 연주와 지우의 대화를 반영하여, 소개 영상 구역의 게시물에 작성자 이름을 노출하였다.
- ③ 가상 게시판 1에서는 짧은 소감의 분류 방법에 대한 윤아와 지우의 대화를 반영하여, 주제어를 적은 게시물에 댓글이 달릴 수 있게 하였다.
- ④ 가상 게시판 2에서는 질문 작성의 어려움에 대한 연주와 윤아의 대화를 반영하여, 예시 질문을 적은 게시물을 올렸다.
- ⑤ 가상 게시판 2에서는 가상 게시판의 배경에 넣을 이미지에 대한 승규와 연주의 대화를 반영하여, 책 이미지를 삽입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